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3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3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서일준 · 유영하
김선교 · 김승수 · 김소희
박성민 · 김미애 · 권영진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·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고용의 기반으로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·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·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.

그런데,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,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·발전에 손해가 되고 있음.

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

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특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3(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특례)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 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 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 나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수익자 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 는 대부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 부하게 할 수 있다.